

6.25 동란과 공산주의: 중복 주사파 척결이 호국보훈이다

성경말씀: 갈5:1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은 '폭풍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북위 38선 이남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하여 민족 간의 대전쟁이 발발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상까지 3년 동안 민족상잔의 뼈아픈 고통이 진행되었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어 채 2년도 되지 않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 체제 대한민국은 무려 10년 동안 전쟁 폐허 복구에 몰두해야만 했다. 얼마나 죽고 다쳤는가?(한국 국방부와 군사 편찬 연구소 자료)

북한과 전쟁하며

한국군 사망자 13만 8천여 명, 부상자 45만여 명, 실종자까지 모두 포함하면 60만 9천여 명 피해 유엔군 사망자 5만 8천여 명, 부상자 48만여 명, 실종자와 포로까지 포함하면 총 54만 6천여 명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여 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여 명의 우리 측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전투 병력과 장비 등을 지원한 전투지원 16개국과 병원선, 의료진, 의약품 등을 지원한 의료지원 5개국 그리고 물자지원과 물자지원 의사를 표명한 44개국 등을 포함하여 총 63개국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참전하였다.

현충일

나를 포함한 대다수 인간의 미약함, 늘 잊어버린다. 성경 212구절에서 remember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 늘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일들

모세의 신명기: 기억하라.

(신 5:15):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음을 기억하라.

(신 8:18,) 『오직 너는 주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대다수의 나라가 memorial day를 지킨다. 우리는 6월 6일 현충일(현충일(顯忠日), 충성을 드러내는 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며 국가의 중요성과 정체성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날이다(*). 특별히 현충일은 6.25 사변으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기념하는 날

6월이 되면 말로만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현충일의 의미는 퇴색되었다. 거의 추모조차 하지 않는다.

역사를 잊는 국가와 민족은 번영할 수 없다. 과거를 살피고 앞날을 대비해야 살 수 있다.

미국 공항, 군복을 입은 사람이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 필요한 때에 몸을 바쳐 국가를 지키기 때문에, 교회 목사도 일 년에 한 두 차례 애국 설교를 해야 한다.

모세, 여호수아, 대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국가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지름길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를 회상하고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을 목사는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대언자적인 소명이다.

그래서 오늘 < >, 6.25 사변 전 과정 설명, 기억하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의 자유를 지키려 한다.

6.25 사변 과정 살펴보기

1.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남침(*), 이 땅에서 북침 주장하는 자들 내쫓아야 한다.
2. 6월 28일 3일만에 수도 서울 함락(*), 국군의 방어선 붕괴, 임시 수도 대전, 대구 이승만 미국의 도움 요청, 빌리 그래함 목사 등의 탄원, 트루만 즉시 결정, 하나님의 은혜 미국 UN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 UN군 파병 결정, 전투 지원국 16개국 참전: (*)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타이(태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북한군 6월 28일 서울을, 7월 5일에는 오산 전투에서 미군까지 격파하고 7월 20일 대전을, 7월

말 목포와 진주, 8월 초 김천과 포항을 함락시켰다.

3. 7월 말, 낙동강 진출

4. 8월 1일, 국군 유엔군 낙동강 방어선 구축: 다부동 전투와 백선엽 장군

195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6.25 전쟁 도중 지금의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일대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 낙동강 전선의 요충지인 다부동을 백선엽 준장 등이 이끄는 국군 제1사단과 미군 2개 연대가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냈다. 이로써 북한군은 공세종말점에 도달, 유엔군은 추후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상륙 작전 가능함의 애국자 백선엽(*), “나라의 운명이 이 전투에 달렸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면 나를 썩도 좋다.” 이런 애국자를 친일파로 모든 자들 제거해야 한다.

5. 8월 18일 정부를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전함

6. 9월 15일 국군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성공 확률 5000분의 1, 조수간만의 차, 3시간에 해야 한다. 2. 항구에 이르는 접근 도로가 없다. 3. 높은 벽의 상륙 해안, 한미 해병대 2시간만에 월미도에 상륙함(*) 로페즈 중위(*), 무명의 종군 기자, 방파제를 넘는 사진, 수류탄을 감싸 안고 죽음 맥아더 상륙(*), 자유 공원, 송도 인천상륙 작전 기념관, 성조기 게양(*), 김포비행장, 수원 확보 27일 한국 해병대 박정모 소위 최국방 이병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

7. 9월 28일 서울 수복(*)

8. 10월 1일 38도선 돌파

9. 10월 19일 국군 유엔군 평양 점령, 압록강 도달

10. 10월 25일부터 중공군 개입 시작(1차로 26만 명, 총 50만 명 이상) (*), 개마고원 장진호 전투(*), (*), 낮 기온 영하 20도 밤 영하 32도

전투 사상자 3,637명, 비전투전 사상자 3,657명을 기록했고 비전투 사상자 대부분은 동상환자였다.

11. 51년 1월 4일 일사 후퇴(*), ‘1·4 후퇴’라는 명칭은 북한군이 서울을 다시 점령한 1951년 1월 4일의 날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퇴각하는 한국군과 유엔군을 따라서 북한 지역에 살던 주민들도 대거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수많은 난민과 이산가족이 발생했는데, 흥남에서 배를 타고 내려온 피난민만 해도 1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서울 재수복, 51년 3월 15일

13. 그 뒤 3,8선 부근에서 약 2년 간 전쟁

14. 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전쟁의 피해 요약

이산가족 천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사 사망자 약 18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6.25 사변, 이러한 전쟁을 내전이라고 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공산주의자들 중북 주사파 남의 나라 내전에 다른 나라들이 와서 싸울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힘을 모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전쟁이다.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체제 전쟁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된다.

머스크의 사진 한 장(*), 70년 체제 전쟁의 끝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기억하라: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준 나라는 미국이다(*)

3만 6940명 전사, 9만 2134명 부상, 3737명 실종, 4439명 포로, 총계 13만 7250명 피해 이런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미국 - 글쓴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답한 아들과 딸들을 기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남북통일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 장본인 중국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대륙 문명 5000년 동안 착취

해양 문명: 개화, 자유 민주주의, 변영, 대단히 중요한 그림(*),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이 일의 초석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2017년 12월 15일 문재인, 베이징대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라고 치켜세우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지칭” 이런 자를 속히 합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북한 수십 차례 도발

1.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 30분가량 진행된 이 전투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도중 침몰하였고, 정장을 포함한 승무원 6명이 전사당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겪었다. 대통령은 일본 월드컵 여행
2. 천안함 폭침(*),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폭침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해안경비정에 의해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으며 나머지 46명은 실종되었고 이후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진행되면서 2010년 4월 24일 17시 기준으로 실종자 46명 중 40명이 사망자로 확인되었으며 6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

평화 평화 하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거부한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마이클 하워드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쾨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과거가 되풀이되는 저주를 받을 것이(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will be condemned to repeat it.)"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려야 합니다. 특히 6.25 전쟁에서 북한의 무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 준 미국의 은혜를 잊지 말고 통일을 방해한 중공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확고하게 세워 준 자유 민주주의/자유 시장 경제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기려야 할 가치입니다.
이승만을 알려면 김덕영 감독의 영화 건국 전쟁을 보라.

이승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평생 자유, 해방의 자유, 개인의 자유, 국가의 자유를 위해 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이단, 국가의 원수는 공산주의(*)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서 등이 따뜻해지자 새로운 세대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긴다.

심지어 1945년 해방 이후 근현대사를 전혀 모른다.

심각한 역사 왜곡

민족이라는 틀에 갇혀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인식

말도 안 되는 역사 조작

제주 4.3 폭동, 여수순천 반란 사건, 이제는 다 민주화 운동이 되고 만다.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엄청난 혜택

유공자가 있다면 기억하고 보상하자는 데는 나도 동의한다.

며칠 전 국회 청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에 관한 청원,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나친

성역화 및 신격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정치인 가운데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 구분해야 한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 진실유무를 밝히고 해야 하지 않는가? 여야 정치인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정말로 강행하실 것입니까?

OOO 등 젊은 정치인들 큰 문제다.

트로이 목마로 자유 우파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심히 높다. 위험함 인물이다.

왜? 역사를 너무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민주만 강조하면 안 된다.

자유와 민주가 둘 다 평등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만 강조하면 민중 민주주의가 되어 독재가 되기 쉽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

오늘 읽은 갈5:1, 자유주의자 그리스도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임종 시에 한국 국민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유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그냥 자유가 아니라 해방의 자유이다. 속박의 멍에

성경 번역 제대로 해야 한다.

이 땅에서 해방의 자유를 얻어내는 자들이 바로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다.

민중 민주주의 파플리즘, 25만원 나누어 주는 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무: 종북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척결, 자유 우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무명의 윤석열, 자유 우파를 극심하게 탄압하던 윤석열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 구약 시대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독재, 그의 군대 장관 예후를 시켜서 아합 집안을 멸하게 하심. 그대로 했더니 불신자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음(왕하9-10장)

다윗 왕의 조언(삼하23:3-7), 3, 6-7

작금의 위기, 대통령이 결단하고 과거의 실력을 발휘해서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제거하고 부정 선거 등의 의혹 같은 것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해방의 자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고 대통령도 살 수 있다.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경화의 물결에서 이 나라를 확고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